

“맛·멋·흥 가득 ‘전주페스타’ 내년에 만나요”

시, 10월 한 달간 음식·문화·소리 등 주제 5개 축제 통합 개최... 방문객 30만명 다녀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전주의 맛과 멋, 흥을 버무린 10월의 전주 통합 축제 ‘전주페스타 2024’가 내년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3일 열린 ‘전주페스타 오프닝축제’를 시작으로 10월 한 달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전주의 음식과 문화, 소리 등을 주제로 한 5개 축제로 펼쳐진 ‘전주페스타 2024’가 26일 클로징축제로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페스타 2024’는 4주간 △오프닝축제·전주비빔밥축제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전주독서대전 △조선팝페스티벌 △전주막걸리축제·클로징축제 등 문화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며 연인원 약 3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문전 성시를 이뤘다.

먼저 1주차에 펼쳐진 전주비빔밥축제에는 40여 개의 전주 음식부스가 참여한 가운데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전주의 맛을 알렸다.

특히 지난 5일 펼쳐진 ‘대형비빔 퍼포먼스’에서는 철거를 앞둔 전주종합경기장의 준공년도를 기념하기 위해 총 1963명의 시민이 참여하면서 한국 기록임 기록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어 2주차에는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과 전주독서대전이 동시에 펼쳐져 각 축제의 체험 콘텐츠를 즐기기에 축제장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야간에 펼쳐진 국제한지 패션쇼와 전주페스타 레트로클럽, 전주한복모델선발대회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

진 전주독서대전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펼쳐진 강연에도 발걸음이 이어졌다.

또한 3주차에는 퓨전국악 공연인 ‘조선팝페스티벌’이 3일간 펼쳐져 행사장에 흥을 더했으며, 아울러 4주차에는 올해 처음 개최된 전주막걸리축제가 진행돼 전주비빔밥축제, 다양한 음식 부스와 더불어 전주의 맛을 알렸다.

여기에 올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전주페스타 클로징축제’에서는 올해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전주종합경기장과 관련한 특별영상, 어린이합창단 공연, 인기가수 축하공연, 드론라이프쇼가 펼쳐져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올해 전주페스타 기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는 매주 초대형 드

론쇼가 하늘을 수놓았으며, 전주한바탕어울림공연과 마당창극, 온가족시인장터 등 다양한 연계 행사가 진행됐다. 또, 달콤스토어, 슬박스, 우리놀이터 등의 콘텐츠를 통해 더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시는 내년에 더욱 더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해 ‘전주페스타’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0월 한 달간 전주페스타와 함께 해주신 전주시민과 관광객, 축제 준비와 운영에 참여하신 봉사자 등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많은 분이 전주페스타를 방문해 전주의 맛과 멋, 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성문화 의식 개선 최선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캠페인 전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기봉)는 지난 26일 오전, 전주중남문 일대에서 학생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문화 의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 5명과 센터에서 모집한 청소년 동아리 ‘성문고개’(캠페인으로 성문화 고치고 개선해) 학생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 이슈로 부상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환경 속 성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성범죄 예방 및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슬로건 달기 △딥페이크 관련 노래 가사 빈칸 채우기 △디지털 A가솔

네티켓 약속 정하기 △딥페이크 피해 예방 및 피해 상황 행동 수칙 등으로, 특히 주 타깃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벼운 체험 형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이뤄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딥페이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기봉 센터장은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신규 이용객 위한 전주월드컵골프장 이용 동영상 제작

전주시실용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전주월드컵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골프 라운딩을 즐길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했다.



전주월드컵CC 이용 가이드

지난 25일 공단에 따르면 월드컵골프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동영상은 골프장을 처음 방문하는 이용객을 위해 방문부터 수동카트 수령, 클럽하우스 방문, 요금 결제, 고액 입장 명부 작성, 대기 및 입장까지 골프장 이용 방법을 순서대로 쉽게 설명한다.

또 안전한 라운딩을 위해 골프장 이용 안전 수칙도 안내한다.

2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공단 직원과 인턴사원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이연상 이사장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라운딩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에 직원들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이 동영상은 안전 수칙도 안내한다.”

2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공단 직원과 인턴사원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김옥기 기자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 혁명의 기념공간’

전주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혁명을 기념하는 이유’ 주제 개최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혁명을 재조명하고, 각국의 혁명 기념방식을 분석하는 국제포럼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박민수)는 지난 25일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에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 혁명의 기념공간’을 개최했다.

시가 이처럼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동학농민혁명의 영웅과 민중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노력과 성취를 전주의 이름으로 종합하고 정리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특히 올해 국제포럼에는 전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남아공의 벨스 만델라 재단이 초청돼 이목이 집중됐다.

만델라의 정신과 동학농민혁명은 그 출발과 배경은 상이하지만, 정의와 평등, 평화와 화해라는 21세기의 시대적 질문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먼저 목수정 작가가 ‘프랑스혁명의 기억과 기념



전주시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지난 25일 완산도서관에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 혁명의 기념공간’을 개최했다.

2024 파리 올림픽을 사례로 그 출발과 배경은 상이하지만, 정의와 평등, 평화와 화해라는 21세기의 시대적 질문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 잔델레 미예카(Zandile Mnyaka) 벨스 만델라 재단 큐레이터와 레미 뒤틸레(Remy Duthille) 프랑스 보르

도 몽테뉴 대학 교수가 각각 남아공과 미국·영국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혁명을 기념하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레미 교수는 영국의 혁명 기념물과 기념 공간을 분석한 후 “혁명조차도 그 자체가 특정 집단이 자신들

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기념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남기기도 했다.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제임스 크라플(James Krapfl)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 교수도 앞선 사례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혁명을 기념할 때 무엇을 기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시는 지난 2021년 ‘혁명문화와 영화’로 시작해 2022년 ‘혁명의 음악과 노래’, 지난해 ‘혁명의 미술’, 올해 마지막 주제인 ‘혁명의 기념물과 기념공간’을 주제로 기념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내년에는 다시 ‘혁명문화와 영화’를 주제로 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포럼은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 세계 각국의 혁명을 다시 조명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혁명의 가치를 어떻게 계승하고 지속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였던 전주시는 앞으로도 혁명을 기념하고 동학의 정신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덕진신협, 어려운 이웃에 이불 전달

전주덕진신협(이사장 임문옥)은 지난 24일 덕진구 송천1동주민센터(동장 권병만)에 겨울 이불을 전달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전주덕진신협의 나눔 활동은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신협 사회공헌재단에서 10월 1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온 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하여 9회째를 맞는 본 캠페인을 통해 전국 696개 신협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 가정에 이불 등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담은 어부비박스를 나누어 지역 내 나눔 운동을 높일 예정이다.

전주덕진신협 임문옥 이사장은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주덕진신협은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에 밝은 햇살을 비추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권병만 송천1동장은 “이번 신협 나눔 캠페인은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고, 다른 유관 기관에도 이웃 사랑 실천의 모범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후원받은 이불은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 20세대를 선정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